

'전주시립미술관'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시, 올해 기본·실시설계 추진... 2026년 말까지 완공 예정

전주시는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문화 예술을 공유할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추진한 설계 공모의 당선작으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옛 야구장 자리에 들어설 전주 시립미술관이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건축물로 지어진다.

당선작을 제출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 문화예술의 정점이 될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총사업비 4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47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갤러리 △수장고 △

다목적공간 등이 들어서며, 시는 시립미술관을 뮤지엄벨리의 중심시설이자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문화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옛 야구장 부지에 대한 문화시설 건립이 본격화되면 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이자 동아시아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MICE복합단지 추진과 맞물려 전주의 미래를 바꿀 가시적인 종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장은 "전주시립미술관이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전주문화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전주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재능을 배우고 익혀 이웃을 위해 사용할 50명의 전주지역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들이 추가 탄생했다.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50명 양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특화교육 수료식 가져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 10일 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50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과 자원봉사자증을 전달했다.

지난 3월부터 주 2회씩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봉사자들이 현장 경험을 쌓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날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미용 △발마사지 △손케어의 3개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활동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그동안의 교육 소감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특화교육 '풍선아트' 과목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강사와 함께 수료식장을 다양한 풍선 장식으로 꾸미고 예쁜 풍선 꽃

다발까지 준비해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지리가 됐다.

최이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날 "자원봉사에 대한 열정을 이끈 50명의 교육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화교육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현하는 봉사자들의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 특화교육은 자원봉사 영역을 다양화하고 재능나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000여 명의 전문봉사자를 양성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전문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행사 등에 지속적인 재능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열려

전주지역 노동자 사기진작 화합 통해 권익 신장 제고 모범조합원 10명 표창장 수여

전주지역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화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신관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렸다.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신관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한승우 시의원 및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축사 △모범조합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노사

화합에 기여한 모범조합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지역 경제발전의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전주시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힘써준 노동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노동자는 우리 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전주시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동자 복지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사무국, 이동노동자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전환 교육 시작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지역의 미래세대 3000여 명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에 본격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미래세대 에너지전환 교육은 전주시 공공건축물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4등급 인증을 획득한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방법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난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제

로에너지건축 탐험대에 이어 이달부터 6·7세 유아와 함께하는 '내 손으로 에너지하다'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한 후 7월 중 신규 접수를 받아 오는 8월부터 하반기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에는 25개 유아교육 기관과 20개 중등 교육기관 등 총 1500여 명의 미래세대가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센터는 에너지 문제에 대



전주시에너지센터는 올해 지역의 미래세대 3000여명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교육에 본격 착수했다.

한 미래세대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실천을 유

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에너지 전환 교육을 추진해왔다. /김욱기 기자

전주 이후2동 통장협의회, 일제 대청소 나서

전주시 덕진구 이후2동 통장협의회(회장 임예실)는 지난 9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주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견훤왕궁로 일원에서 여름철 호우 대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모인 이후2동 통장 38명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1일 1회 관내 순찰과 청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 취약지를 선정해 곳곳에 쌓여있던 각종 쓰레기를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호우에 대비, 우수받이 내 이물질과 잡초 제거를 통해 안전한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임예실 통장협의회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이후2동을 만들기 위해 통장단



이 열심히 노력했다"며 "특히 오늘 같은 대청소를 기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환경 취약지를 지속적으로 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이후2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시는 이후2동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뚝에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